

Let's Security

무료 백신, 써도 될까요?

요즘 무료 백신이 대세인가 봅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개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공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무료 백신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됐던 백신은 성능이나, 기능면에서 돈을 낸 유료 백신 서비스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이들 무료 백신들이 값싼 비지떡인지, 아니면 굴러 들어온 호박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컴퓨터 사용자에게는 필수 정보보호 제품이 돼 버린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은 대개 연단위로 약 35,000원 내외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유료 서비스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료가 아닌 무료 백신은 백신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실시간 감시나 업데이트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아, '무늬'만 백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중에서도 무료 백신을 개발 배포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 역시 백신 전문업체가 내놓은 제품에 견줘 볼 때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영터리'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 솔루션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무료 백신을 '공짜'라고 무조건 반길 사용자들도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근 등장하고 있는 무료 백신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짜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무료 백신이 많은 관심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백신의 품질이 유료 백신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백신 전문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N사, E사, Y사 등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업체의 무료 백신은, 기능과 성능 면에서 공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백신제품을 만들지 않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내놓은 백신이 어떻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또 '백신 회사가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실시간으로 PC를 보호하기 위한 패턴을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계속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등등의 궁금증 말이죠.

아시겠지만, 무료 백신을 내놓은 기업들 중 백신을 전문적으로 개발해 오던 기업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형 포털 서비스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내놓은 무료 백신의 품질이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백신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백신 전문 개발업체로부터 백신 엔진을 구매해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유료 백신에 대해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서비스, 즉 실시간 감시기능이나, 실시간 엔진 업데이트, 표준화된 탐지 기능 등이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새롭게 개발해 공짜로 배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시중에 판매돼 왔던 백신 제품을 개인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백신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유료 백신 서비스 형태 달라질 듯

이처럼 여러 개의, 그것도 양질의 백신이 무료로 배포된다는 발표가 있는 후, 정보보호와 관련된 많은 관계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특히 무료 백신이 가정 등 정보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PC를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큼니다. 사실 사무실에서는 기업 내 규정에 의해 백신을 사용하게 되지만, 가정에 있는 PC를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며 백신을 설치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방치된 PC들은 다양한 워·바이러스에 노출돼 해킹이나 다양한 공격에 악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료 백신들은 '방치'된 PC의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어, 국내 정보보호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백신 설치비용이 없어서 PC가 워·바이러스나 악성코드에 감염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무료 백신의 등장과 함께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것은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판매해 왔던 업체들의 서비스는 어떻게 변모해 갈 지입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기존의 백신업체들이 제품을 OEM 방식으로 전환해 백신 엔진의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비중을 높이는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더 좋은 백신 기능과 서비스로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백신 서비스보다 발전된 서비스, 다시말해 유료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백신업체 중 한 곳은 이미 특별한 유료 백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무료 백신은 무료대로, 유료 백신은 유료대로 서비스 품질을 계속 높여지게 되니, 결과적으로 백신 사용자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아차.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을 뻔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무료 백신은 어디까지나 개인 사용자를 위한 공개 프로그램으로,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된 PC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그에 합당한 유료 백신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실, 잊으면 곤란하겠죠! **S**